

건강 칼럼

리비도, 성충동, 성욕, 성욕동... 한의학에서의 성욕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성충동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성충동을 자신의 감정대로 표현한다면 도덕적인 지탄을 받으며 병적인 증세로 인식될 수 있다. 요즘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성추행, 성폭력으로도 이어져 사회적 문제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충동은 나쁜 것일까? 성충동이 없는 삶은 어떠할까? 성충동은 자신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성충동에 대한 내용은 정신분석학과 한의학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트 이후로 성충동, 성욕동, 성본능, 리비도 등으로 표현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기본요소인 정(精), 기(氣), 신(神)의 하나인 정(精)이 바로 성충동의 근원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정력을 보한다고 보며, 정력제, 공진단 등이 모두 정을 보하는 한약제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에서 성충동은 리비도(Libido)라고 표현하였다. 프로이트는 이드(id) 즉 무의식에서 나오는 정신적 에너지로써 성적 에너지인 성욕, 성적 충동 등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성충동을 성인이 아닌 유아기에서부터 발현된다고 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

카를 융은 뜻을 넓혀서 역동성을 갖는 생명의 에너지라고 하였다. 정신분석학에서의 리비도, 성충동에 대하여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구강기의 리비도는?



김수범 우리한의원 원장

구강기는 20개월 전후의 유아기로써 어머니의 젖을 빨 때 리비도가 작용을 하여 쾌락을 느낀다. 그러다 어머니로부터 젖을 떼어 분리가 일어나면 대상을 바꾸어 손가락, 발가락, 젖꼭지 등에 리비도가 작용을 하여 쾌락을 느낀다.

그러나 성적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 완만한 성격이 되거나 등에서 만족을 찾고 만족하지 못하면 입주위에 관련된 신경성증세들이 나타난다.

항문기의 리비도는? 3세가 되기 전까지의 유아기로서 배설물을 참고 있을 때 쾌락을 느끼며 자신이 만들어낸 대변에 대하여 쾌락을 느낀다.

이때에 철저한 배변습관을 하였다면 성인이 되어 완만한 성격이 되거나 쉽게 느슨한 배변습관을 하였다면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성격이 되기 쉽다.

남근기의 리비도는? 남근기는 3-6세때로써 성기에 대한 인식을 하며 소변을 보거나 성기를 만질 때 성적쾌감을 느낀다. 성적 호기심, 여자에게 성기가 없는 것, 탄생 등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시기이다.

잠재기의 리비도는? 잠재기는 6세이후의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리비도가 중단이 된다. 이것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하여 리비도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법을 가르쳐 리비도를 학습, 노동, 예술 등으로 승화시켜 사회가 유지되게 한다.

또 이때는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발생하여 리비도가 중단된다. 가정에서 아들은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성적으로 경쟁하고, 딸은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와 경쟁한다.

이이는 강한 아버지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죽이고 싶은 본능인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생기며, 아버지도 자신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세공포를 느낀다.

이이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부러움을 느끼며 이중적 감정을 경험하는 거세공포에서 아버지와 경쟁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거세공포에 의해서 어머니로 향한 리비도를 억제하고 포기함으로써 가정에는 성적대상이 없어져서 리비도의 활동이 중단된다.

생식기의 리비도는? 전 생식기에는 리비도가 자기신체에서 성적대상을 찾던 자가성애였다면 생식기에는 성적대상을 외부에서 찾은 상대성애로 변하게 된다.

또 입, 항문, 남근으로 흘러진 성

욕을 내뿜는다. 정상적인 생식기의 성적 목표는 타인과의 생식기 결합, 성교를 의미한다.

만일 이 과정에 장애가 생기면 일탈이 일어나게 된다. 리비도가 대상의 선택에서 장애가 생기면 동성애, 미성년, 동물성에 등이 나타난다. 성적 목표에 장애가 생기면 관음증, 노출증, 사물기호증(페티시즘), 가학증(사디즘), 괴학증(마조히즘) 등의 도착이 일어난다.

자아리비도, 대상리비도란? 리비도가 향하는 곳에 따라서 자아리비도, 대상리비도가 나누어진다. 리비도가 자신에게 향하게 되면 나르시즘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나르시즘이 병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른 이성으로의 사랑을 통하여 리비도의 관심을 외부로 보내면 내부에 집착이 되면 리비도가 풀어지게 된다.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면 리비도의 외부로의 승화가 필요하다. 성적리비도를 예술, 취미, 종교 등에 관심을 돌려 승화시킴으로써 내부로 집착이 되는 리비도를 밖으로 돌릴 수 있다.

한의학에서의 리비도는 인체의 기본요소인 정(精), 기(氣), 신(神)의 중의 하나인 정(精), 정력(精力)으로 심천적인 원기, 에너지이다. 정은 생식의 원천으로 남녀의 정이 만나서 생명을 탄생시킨다. 또 생명의 원천으로 인체내에서 정력, 뇌, 뼈, 이빨, 머리카락, 골수의 기분이 되며 오장육부에 있는 정 원천이 된다. 정이 튼튼해야 정력, 기억력, 창의력, 의욕, 체력 등이 강하여 생명력에 활력을 넣어준다. 한의학적으로 정을 도와줌으로써 리비도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사설  
특별 두 신문 이야기

최근 영화 '특별 두 신문 이야기'가 개봉되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다. 이 영화는 모두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일제강점기 국내 대표 두 개 신문의 실제 행적을 추적하고, 2부는 해방 이후 두 신문이 군사 독재 권력과 결탁하는 과정을 그렸다.

일본 제국주의라는 절대권력 아래 두 신문은 기생하고 명맥을 이어왔다.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고 국민들을 전쟁터로 몰아가는 과정에 앞잡이 역할을 했다. 식민지 수탈을 정당화 해준 것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지원병 모집에 도 적극 나섰다.

조선인도 제국 신민으로서 응분의 의무를 다하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무테타로 집권한 정통성 없는 권력이 들어서고 이를 정당화해 줄 선전 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도 앞장섰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인권과 언론 탄압이 극심했다.

젊은 기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단 언론 사주는 이들을 내쫓았다. 지금도 여전히 일부 신문사

특별 사주들의 권한과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여러 갈등과 반복, 상호비방, 혐오 등이 심각하다.

이는 한국 언론 문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언론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기사형 광고의 경우 경제지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나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 1, 2위를 다툰다. 신문의 세습도 문제다.

언론은 여론을 움직이는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 국정원, 검찰, 청와대를 소재로 다룬 영화는 있었다. 반면 한국을 쥐고 흔들었던 언론사를 다룬 적은 없었다. 정부 차원에서 언론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수구 기득권 세력과 대립만 심각했다. 언론개혁이 좌절되고 말았던 이유다. 언론개혁을 내버려 두면 불신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언론을 성역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 언론 사주는 이들을 내쫓았다. 지금도 여전히 일부 신문사

전주 슬로푸드와 김분호 지부장

전주 슬로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주 슬로푸드는 전주 한옥마을의 슬로시티 지정과 걸 맞는 일이다. 전주 음식의 특색과 세계화에 나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분호 슬로푸드 전주 지부장은 슬로푸드 운동의 장본인이다.

그는 전주의 전통음식 문화를 전승하고 건강한 삶을 계승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그는 아동 요리 분야에 감명을 받아 학교, 학습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다니며 이를 전파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줄 방법을 찾다가 약선(藥膳)을 알게 됐다. 약선 요리를 배우기 위해 서울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슬로푸드를 처음 만났다. 그 뒤 2013년 슬로푸드 전주지부를 출범시켰다.

이듬해에는 제17기 슬로푸드 매니저 양성 과정을 열어 23명의 슬로푸드 매니저를 배출했다. '장 만들기' 행사는 회원 증대에 한몫을 했다. 슬로푸드(Slow Food)란 세계적

미각의 표준화를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전통적이며 지속 가능한 음식과 식재료를 지키며 경작법과 가공법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슬로푸드 운동은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항하여 시작되었다. 1986년 로마의 맥도널드 햄버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시초다.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 미국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널드가 문을 열었다.

그러자 당시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 지방의 언론인 카를로스 가 슬로푸드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1989년 파리에서 국제슬로푸드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패스트푸드는 맛을 획일화하고 전통음식을 소멸시킨다. 반면 슬로푸드는 식사의 소중함과 미각의 즐거움을 되살리고 전통음식을 보존하는 운동이다. 앞으로도 전주 슬로푸드 운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민원실에 근무중 교통 무인단속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민원을 자주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체납 과태료를 다 냈는데, 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이 날라왔냐?", "경찰이 왜 차량 번호판을 때려 왔냐?" 등 다양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1. 7. 6일부터 교통 무인단속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이 제한되어 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교통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소유권이전 등 제한!

무인단속 체납 과태료를 완납해야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시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독촉장이 날라왔다는 민원은 압류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며, 독촉장은 압류로 전환되기 전에 위반한 과태료

인 것이다. 폐차장이나 매매상사의 '과태료를 다 납부했는데 폐차나 이전에 안될 리가 없다'는 말 등을 전적으로 믿지 말아야 한다.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교통 무인단속 체납 과태료 합계 30만원이상, 60일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영치 사전예고 후 변호관을 영치(영치중 교부)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카드로(www.cardroax.or.kr) 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 부과) 가능하다. /전근수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경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